

박 미하일 소설 연구*

— 『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를 중심으로

정덕준, 김게르만(카자흐스탄국립대)*

〈목 차〉

- | | |
|--------------------------|--------------------------|
| 1. 서언 | 3. 예술, 민족과 탈(脫)민족의 균형 잡기 |
| 2. 고려인 이주사와 작가의 자기정체성 탐색 | 4. 결어 |

1. 서 언

CIS 고려인의 러시아이주는 1864년 1월 연해주 당국의 이주허가를 받은 수십 명의 조선인 농민이 러시아 극동지방 남(南)우수리스크 지역으로 건너와 ‘티진하’에 첫 조선인 마을을 개척하여 정착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조선인의 이주가 급증하여 1920년대에는 이주민 수가 20여만 명에 이른다.¹⁾ 이들 대부분은 생계를 위한 이주민이지만,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임(NRF-2012-S1A5A2A03034668).

* 정덕준, 카자흐스탄국립대학 초빙교수/ 김 게르만, 카자흐스탄국립대학 교수

1) 이에 대해서는 김 게르만, 『한인 이주의 역사』(박영사, 2004); 윤인진, 『코리아 디아스포라: 재외 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고려대출판부, 2004); 김필영,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문학사』(강남대출판부, 2004) 참조.

연해주 지역에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건너간 지사들도 적지 않았으며, 그들은 연해주(원동)에 자리를 잡고 러시아혁명에 가담, 소비에트 정부가 들어서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1937년 스탈린 정부에 의해 연해주 지역 이주 조선인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고, 현지에서 공민권 제한과 거주지 제한 등 갖가지 차별을 받으며 정착한다. 이러한 민족 차별은 스탈린 사망 이후까지 지속되다가 소비에트연방 해체 이후 비로소 자유를 되찾지만, CIS 국가들이 민족주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들은 거주 국가를 떠나 다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등지로 역이주하기도 한다.²⁾

CIS 고려인 작가는 이와 같은 고려인 사회의 이주·정착 과정과 질곡을 각양의 시각으로 작품에 형상화하는데, 이들 고려인 작가는 크게 세 부류로 나뉘어 살필 수 있다. 사할린이나 연해주 출신 작가, 중앙아시아 지역이나 러시아에서 태어나 자란 작가, 탈북 고려인 작가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출신 지역에 따라 고려인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사할린/연해주 출신 작가들은 고려인 사회 나아가 소련 사회를 타자화(他者化)하여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중앙아시아/러시아에서 태어나 자란 작가들은 대부분 현지 고려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 대부분은 개혁개방을 전후하여 창작의 자유가 확보되자 자녀 교육과 이민족간의 결혼 문제, 도시화에 따른 가족 해체와 전통의 붕괴, ‘꼴호즈’를 중심으로 한 생활 등 주로 고려인의 삶을 다루고 있다.³⁾ 그리고 탈북 고려인 작가들은, 개인의 편차는 있지만, 고려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것을 소련과 남북한 사회체제와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사고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박 미하일⁴⁾의 작품 세계는 독특하다. 박 미하일은 사할린/연해주 출신

2) 현재 CIS 고려인은 50여만 명으로, 22만 명이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 연해주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은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등에서 역이주한 1만 명과 사할린에 있는 4만3천 명을 포함하여 약 8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 현황> 참조).

3) 김 게르만, 『나는 고려사람이다』, 국학자료원, 2013/임형모(외), 『고려인문학: 중앙아시아편』, 청동거울, 2013 참조.

4) 고려인 5세 작가. 1949년 타시켄트 출생. 1961년 부친과 함께 타지키스탄 두산베로 이사, 1970년 타지키스탄 미술대학 졸업. 1976년 문단에 데뷔한 그는 1980년대부터 카자흐스탄 알마티

고려인 작가나 탈북 고려인 작가와는 달리, 또한 그 자신처럼 중앙아시아/러시아에서 태어나 자란 여타 작가들과도 달리, 고려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소련 체제의 모순과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을 내보인다. 1990년대 이후 발표된 그의 소설 『천사들의 기슭』(1991), 『밤, 그 또다른 태양』(1996), 『사과가 있는 풍경』(2000), 『개미도시』 『흰 닭의 춤』(2002) 등을 보면, 고려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와 함께 소련의 개혁개방 이후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러시아 사회의 명암이 짙게 드러나 있다.⁵⁾ 이는 탈북 고려인 작가들이 고려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소련과 남북한 사회 체제와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것과는 다르다. 작품집 『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⁶⁾는 특히 그러하다. 여기서 작가는 고도의 예술적인 성취를 향해 몸부림치는 화자들을 통해 시대의 모순을 극복할 전망을 모색해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협애(狹隘)한 민족성을 내세우지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 세계의 근저에는 이주 고려인의 상흔(傷痕)이 자리를 잡고 있다.⁷⁾ 아나톨리 김이 ‘민족적인’ 것을 거세하고

에서 본격적으로 창작활동을 함. 1997년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주, 그의 고조부가 가족과 함께 월경(1863년)하여 연해주에 정착한 이야기를 담은 『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를 비롯, 『별가벗은 사진작가』 등 20여 편의 장·단편소설을 발표함. 단편 「기다림」으로 1999년 미국 LA에서 해외동포문학상을 수상했고, 2001년 재외동포재단 및 펜클럽문학상(단편 「해바라기」), 2001년 러시아 까따예프 문학상(중편 『사과가 있는 풍경』), 2007년 러시아 까따예프 문학상(장편 『애올리』), 2010년 러시아 쿠프린 문학상(단편집 『남쪽에서의 구름』) 등을 수상했다. 화가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는, 모스크바(1998, 1999, 2001), 파리(1995, 2006), 알마티(1997, 2005), 서울(1993, 1995, 2000, 2004)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한국에서 번역 출판된 작품 집으로는 『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새터, 1995), 장편 『별가벗은 사진작가』(수산, 2007), 『밤, 그 또다른 태양』(북치는마을, 2012), 『개미도시』(2015, 뱀씨터) 등이 있다.

- 5) 이에 대해서는 이상갑·정덕준, 「1990년대 이후 CIS지역 고려인 문학 연구-박 미하일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9집, 2013. 3 참고.
- 6) 두 편의 장편 『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 『천사들의 기슭』이 수록되어 있다. 전자는 작가가 고려인 이주사와 관련하여 고려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탐색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후자는 작가 스스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밝힐 정도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작품으로, 『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의 속편의 성격을 띠고 있다.(박 미하일, 『작가의 말』, 『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 새터, 1995, 참조.)
- 7) 장미야, 「박 미하일 소설에 나타난 고려인-예술가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석사, 2014. 2.

세계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⁸⁾ 박 미하일은 고려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소련 체제의 모순과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사고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시대의 모순을 극복할 전망을 모색해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이주 고려인이라는 자기정체성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

알려진 대로, 박 미하일 소설에는 ‘떠남의 모티브가 자주 등장한다.’⁹⁾ 『사과가 있는 풍경』의 에밀리아는 ‘자유의 나라 미국’으로 떠나려고 하고, 『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의 고려인 세베리나는 사업차 연해주에 온 미국인 시몬스와 함께 샌프란시스코로 떠난다. 그리고 『천사들의 기슭』의 게르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만으로 떠나와 독일 남자와 가정을 꾸리고 있고, 고려인 선국철은 가족과 함께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떠나가 사업하고 있다. 박 미하일 소설의 이러한 ‘떠남’ 모티브는 작가의 자기정체성 탐색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박 미하일은 중학교를 마치고 상급 미술학교에 입학한 후 십여 년 동안 “소련 각지를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세상을 무척 많이 편력”하는데, 훗날 젊은 시절 방랑의 까닭을 “어떤 푸른 나라” “꿈과 환상을 찾고 있었는데도 모른다.”고 회상한다. 그는 장년이 된 “지금도 바다에 떠 있는 선박이나 혹은 저 먼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기차를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고”¹⁰⁾ 하는데, 그기저에는 그의 고조부와 증조부, 조부 모두 어부였다는 것, 그래서 항상 ‘떠남’에 익숙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러시아 국적의 러시아인이면서도 여전히 ‘고려인’일 뿐 결코 ‘러시아인’이 될 수 없는 경계인으로서의 일상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바꿔 말하여, 이들 소설의 ‘떠남’ 모티브 또는 ‘떠남’ 의식은 시대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안에 다름 아니며, 박 미하일 소설의 근저에는 이주 고려인의 상흔(傷痕)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박 미하일의 장편 『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 『천사들의

8) 이에 대해서는 이상갑·정덕준의 「민족어의 자장(磁場), 민족의 경계 넘기-『행복의 고향』 『오늘의 빛』을 중심으로」(『현대문학이론연구』 28집, 2006. 8)을 참고할 수 있다.

9) 이는 박 미하일 소설의 특성 가운데 하나로, 이민족으로서의 방랑자 의식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도 있다.(박 안토니나, 『미하일 박의 소설 연구: 『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의 주제 의식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51집, 2011. 4/김중희 편, 『한민족 문화권의 문학2』, 국학자료원, 2006. 참조)

10) 박 미하일, 「작가의 말」, 앞의 책, 7면.

기습』를 중심으로 박 미하일 소설이 추구하는 세계, CIS 고려인으로서의 작가의 자기 정체성 문제와 함께 ‘민족과 탈(脫)민족의 경계를 뛰어넘는 지점과 함께 박 미하일 소설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고려인 이주사와 자기정체성 탐구

박 미하일의 장편 『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이하 『해바라기 꽃잎』으로 약칭)는 1860년대 초에 러시아 극동지역 연해주로 이주해간 ‘조선인’¹¹⁾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고려인의 이주 역사를 재구해 보이고, 2장부터 화기를 꿈꾸는 주인공 ‘월국’의 성장과정을 통해 고려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탐구를 그려 보이고 있다. 작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역사적인 자료와 옛 기록들을 조사하는 한편, 작가의 고조부와 증조부, 조부 등 선대들과 자신의 체험을 치밀하게 고증했다고 하는데, 이에 힘입어 1장에서의 고려인의 이주 정착과정은 역사 현실의 복원이라 할 만큼 사실적이다. 이 점에서 『해바라기 꽃잎』은 박 미하일 선대들의 이야기이고, 주인공 ‘월국’은 작가의 분신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해바라기 꽃잎』은 함경북도 경흥의 한 농촌 마을을 원경으로 시작한다. 이 마을에는 13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농가가 40채나 되는 마을 두 개를 소유하고 있는 경원의 양반 이성택의 소작인들이다. 최일수의 동생 춘소는 성질이 무섭기로 소문이 난 지주 마차연의 집에서 5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는데, 어느 날 춘소는 마차연의 집을 박차고 나와 형 일수에게 북쪽 러시아로 갈 것이라고 말한다. 거둬들인 홍수와 흉년, 지주의 핍박과 배고픔을 견딜 수 없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러시아로 떠날 것이고, 이미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러시아로 건너갔다고 말한다. 러시아에 가면 사는 게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옆집 안상기의 부추김에 러시아로 건너갈 마음을 갖고 있던 최일수는 동생 춘소의 말을 듣고 안상기와 함께 러시아로 떠나게 된다. 경흥에 남아 있는 한 그도,

11) 작가는 이 작품에서 ‘고려인’이 아니라 ‘조선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1860년대 초에는 ‘고려인’이 아니라 이주 ‘조선인’이었던 역사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계속해서 머슴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러시아는 “저 알 수 없는 곳”(207면)이고, 또한 경흥 관현에서는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에 갔다 돌아온 사람들을 시범적으로 처형한 티라다시는 돌아올 수도 없는 곳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러시아로 떠난다. 그만큼 경흥에서의 삶이 간고했던 것이다.

최일수는 러시아로 떠나면서 마당에 무성하게 자라있던 대나무 뿌리를 캐서 가져간다. 그리고 그것을 러시아에 가서 집 앞에 심는다.

한마디로 굉장하군요. 대나무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의 고향을 생각나게 해줄 테지요. 조선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대나무가 울창하게 잘 자라게 되는 거라구요! 애들이 알겠니? 대나무를 소중히 가꾸어야 한단다.¹²⁾

경흥에서 가져온 대나무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고향이고, 망향의 매개이다. 그래서 어른들은 연해주에서도 대나무가 울창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고, 자녀들 또한 이 대나무를 소중히 가꾸며 비록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고향이지만 언제까지나 잊지 말 것을 교훈한다.

최일수 일행이 연해주에 도착하기 전 이미 그곳에는 조선인들이 많이 건너와 정착하고 있었다. 티진해 75가구를 비롯하여 시지미, 양치해 등 세 곳에 약 200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었다.¹³⁾ 이들은 경흥·원산·회령 등지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한양(서울)과 제주도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 이주 조선인 방채도는 십년째 연해주에서 살고 있는데, 그 또한 가난을 면하기 위해 겨울에 뽕콩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 이곳으로 왔으며, 러시아인과 혼인하여 딸까지 둔 그는 중국 훈춘을 오가며 흑담비와 도자기 원료, 화약과 신발 등을 거래하며 살고 있다.

연해주에 이주한 최일수 일행은, 다른 이주 조선인들처럼, 떠 나온 고향에서 겪었던

12) 박 미하일, 『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 새터, 1995, 234면. 이하 작품 인용은 면수만 밝힘.

13) 1878년 남(南)우수리스크 지방 한카이(Hankay) 수이푼(Suyfun) 수찬(Suchan) 지역 인구조사에 따르면, 연해주 20개 마을 6,142명, 아무르 주(州) 블라고슬로벤노예 마을 624명 등 모두 6,766명의 조선인이 거주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김 케르만, 『나는 고려사람이다』, 국학자료원, 2013. 197면.

핍박과 굶주림에서 벗어난다. 러시아 당국은 연해주로 이주해온 이민족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착을 지원하고 보호해준 것이다. 당시 연해주 정부는 이주 조선인들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먹을 양식과 종자, 말과 황소 등의 가축과 농업 용구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이주 조선인 각자에게 경작할 수 있는 만큼의 땅을 제공하여 농사짓게 허용했다. 러시아 정부는 연해주의 황무지를 개척하고 사람이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이주 조선인을 이용한 것이다. 러시아 관리들이 이주 조선인들이 무엇 때문에 고향을 떠나왔는지 묻지 않고, 굳이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까닭이 여기에 있다. 1880년대와 1890년대에 이르러 이주 조선인은 ‘한-러 협정’으로 러시아 제국의 시민으로 등록할 권리를 획득하는데, 이후 이주민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러시아의 극동정책에 따라 이주 조선인 수가 급증하고, 1917년경에는 8만5천 명에 이른다. 이 시기 이주 조선인들은 그 직업도 다양하여, 농부·직공·석수장이·선박기술자·교사, 그리고 학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의 일상과 사회관계, 민족 특유의 문화, 언어는 떠나온 고향에서와 거의 다르지 않았다.¹⁴⁾

이주 초기 연해주 지역 조선인의 처지는, 다음에 보이는 것처럼, 이 지역을 관리하는 러시아 병사가 최일수 일행에게 던진 말에서 그 대강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신들이 무슨 이유로 조선을 떠났는지는 물어보지 않겠소. 물어보지 않아도 뻔한 사실이니까. 당신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요. 우리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러시아 땅으로 이주해오는 다른 모든 이민족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소. 당신들이 원할 경우,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하면 당신들은 러시아 국적을 얻을 수도 있소. 하지만 당신들 국적 그대로 남아도 상관없소. 강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¹⁵⁾

1910년대에 접어들어, 연해주 정부의 적극적인 이주 정책에 따라 러시아 중, 서부 지역의 러시아인들이 대거 연해주로 이주해온다. 당시 연해주 정부의 당면 과제는 식량의 자급자족 문제였다. 그동안 러시아 극동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병사들의 식

14) 이에 대해서는 김 게르만, 「고려사람: 러시아 제국, 소비에트 유니언,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한인들」, 『나는 고려사람이다』, 2013 참조.

15) 박 미하일, 『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 237면.

량은 선박이나 육로 수송으로 조달하고 있었는데, 선박 수송은 너무 길고 계절적 제한을 받는 북쪽 항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제때 조달하기가 쉽지 않았고, 육로 또한 험로라서 곡물 수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연해주 정부는 이 지역의 광활한 황무지를 개간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로 러시아인의 극동지역 이주를 정책적으로 펼친다. 연해주 지역을 관할하는 지휘관 레자노프의 말대로, 이주 러시아인들은 “이곳에 임시로 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정착하기 위해서 온 것”(261면)이다. 연해주 당국이나 관리들이 이주 조선인에 대해 우호적이고 각양의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연해주 정부는 이주 조선인들을 통해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업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일수 일행이 연해주에 이주하여 농사를 지은 해에는 다행히 풍년이 들었다. 연해주 지역에 주둔해 있는 병사들의 식량도 덜 수 있게 되었고, 또 계속해서 이주해오는 조선인들의 정착을 도와줄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러나 최일수를 비롯한 이주 조선인들은, 떠나온 고향에서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궁핍과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러시아 정부와 관리들이 아무리 친절을 베풀고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시 “러시아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선량”했더라도 “타국은 타국일 뿐”이었던 것이다.¹⁶⁾ 더욱이 러시아인의 이주가 점증하면서, 일부 러시아 병사들은 국경을 넘어오는 조선인의 소를 빼앗거나 재물을 강탈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그들은 면발치에서 이주 조선인이 눈에 띄기만 해도 놀려대거나 큰소리로 욕설을 퍼붓기 일쑤였고, 공공연하게 불만을 표시하는 일도 잦아졌다. 민족 차별 또한 곳곳에서 벌어졌다. 우수리 근교의 철도 건설 공사장이나 광산에서는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러시아인 노동자 임금의 절반밖에 주지 않았다.¹⁷⁾ 그러나 이주 조선인들은 추방당하지 않을 까 두려워 이에 항의하지도 못한다. “이 나라 법은” 러시아인을 위한 것일 뿐, 이주 조선인들에게는 “별 도움이 못 되는 것이니까”(313면)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연

16) 박미하일, 「작가의 말」, 위의 책, 8면.

17) 이주 조선인들이 연해주에 이주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간난한 삶의 과정은 다음의 책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책은 모두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주 초기 그들의 삶의 과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강만길, 『(강만길 역사기행) 회상의 열차를 타고: 고려인 강제이주 그 통한의 길을 가다』, 한길사, 1999)

해주 지역을 관할하는 러시아 관리들은 이주 조선인들을 다시 조선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았다.

1917년 10월 혁명은 모든 민족의 노동자를 정의·자유·평등권의 기치 아래 하나로 결집시키려 하는데, 연해주 지역의 이주 조선인들은 이에 호응하여 대대적으로 지지한다. “고려인들은 이 혁명의 결과 이전에 억압을 받던 러시아의 모든 다른 민족들(러시아인이 아닌)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수십 년을 내려오면서(러시아의 원동에서) 착취를 당”해온 다수 이주 조선인들은 “10월 혁명 승리의 결과 토지를 받게 된 것 때문에 혁명에 협조”¹⁸⁾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최일수 일행을 비롯한 이주 조선인들은 “이곳에 뿌리를 내려 이제 자신들의 앞날을 러시아 정부와 더불어 생각할 각오”(269면)를 다진다. 이를 위해 그들은 러시아어 배우기에 힘쓴다. 그들은 주거 지역에 학교를 세워 자녀들에게 러시아어와 조선어, 지리와 식물학 등을 가르쳤다. 자녀들은 어른들과 달리 아주 빠르게 러시아어를 습득했다.

당시 이주 조선인 마을의 학교는 읍[邑, volost] 정부 지원으로 건립하는 예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학교 건립과 유지, 교사 사택 지원, 설비와 교재의 구입 등의 비용은 해당 마을 거주자들이 내는 마을 공금에서 충당했다. 모든 학교는 그 규모가 작아 학생 수가 50명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8세부터 16세 사이의 소년들이 특히 많았는데, 이미 결혼한 학생도 적지 않았다. 교사는 성직자·선교사가 대부분이었고, 이주 조선인도 교사로 근무했다. 조선인 학생들은 모두들 지식에 대한 열망이 남다른 바 있어 읽기·쓰기(정서)·러시아어문법·산수, 조선어나 러시아어로의 번역, 기본적인 예배문 암송, 구약 및 신약 학습 등등의 교과목들을 부지런히 공부했다. 학생들은 특히 산수와 기계적 암송(암기)에서 큰 향상을 보였지만, 많은 학생들이 발음과 정확한 이해 및 번역에 어려움을 느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일부 학생들은 고려 복장을, 일부는 러시아식 루바쉬카와 장화를 신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삶의 방식이 점진적으로 러시아화하는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18) Kim Syn Hwa, *Ocherk po istorii soverskih koreicev*, Alma-Ata: Nauka, 1965, pp.96~97. 괄호 안의 내용은 필자.

19) 이에 대해서는 김 게르만, 「러시아 극동지역의 고려인 교육」, 『나는 고려사람이다』, 국학자료원, 2013 참조

연해주 조선인 사회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조선어를 가르치며 그들이 제 나라 말을 잊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른들 또한 자녀들이 러시아에 사는 이상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러시아어를 반드시 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선인으로 그대로 남아 있고 싶은 사람은 굳이 러시아 국적을 얻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러시아화될 수밖에 없음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이웃 조선인 마을에 다녀온 김철준이 안상기와 나누는 대화에 잘 드러난다.

“다들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겠지요?” 하고 안상기가 물었다.

“물론이지요.” 하고 김철준이 대답했다.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찌되든지 간에 고향 생각과 고향에 대한 기억들은 평생 우리한테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에 있는 조선인들은 자신들의 앞날을 러시아와 관련시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누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 정교를 받아들여 교회에 가서 기도도 하고, 이름도 러시아식으로 바꾸고, 아이들은 러시아어와 조선말을 가르치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러시아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하고 최춘소가 물었다.

“그래야지요.”

“언젠가는 우리들도 그런 식으로 따라야 할 테니까.”²⁰⁾

김철준과 안상기는 물론, 마을 사람들 모두 다른 마을에 사는 조선인들도 떠나없이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고, 고향 생각과 고향에 대한 기억들은 평생 그들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앞날을 러시아와 관련시켜 생각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김철준과 얘기를 나누었던 많은 조선인들은 그리스 정교를 받아들여 교회에 다니고, 이름도 러시아식으로 바꾸고, 아이들은 조선어와 함께 러시아어를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러한 상황을 언젠가는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두만강을 건너다가 조선인 병사들이 쏜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중국 도적떼에 붙잡혀 목숨을 잃거나 재물을 잃기도 하고, 여자들은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러시아에 정착해야만 했다. 그들은 생활방식들

20) 위의 작품, 263면.

을 바꿔보려고 애썼으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시장에서 러시아 옷들을 사서 입었다. 러시아어를 배우기란 결코 쉽지 않지만, “계속 배워나가야 할 뿐 다른 수는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파멸”(279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해바라기 꽃잎』에서 주인공 월국은 화가への 꿈을 이루기 위해 연해주를 떠난다. 초등교육을 마친 월국은 이르쿠츠크의 기선실습학교에 입학한다. 그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이르쿠츠크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상점에 가서 물감과 붓·종이를 구입한다. 이르쿠츠크에서의 그는 도화지와 물감 그리고 연필들을 거의 손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게 되고, 틈만 나면 자연 경관을 그렸다. 지금까지 한 번도 회화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지만, 오직 직관에 따라 그림을 그렸다. 이르쿠츠크에서 월국은 러시아지리학 협회 동(東)시베리아 담당자 세르게이 막시모프의 소개로 성상 회화의 대가 로지온 고르스뜨꼬프에게 사사, 회화의 기본부터 배우게 된다. 월국의 재능을 높이 평가한 막시모프는 어떻게 해서든 월국이 모스크바에서 그림 공부를 하기를 바랐다. 막시모프는 월국의 유학비용을 지원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고르스뜨꼬프의 말처럼 대도시에는 “사람의 모든 능력을 타락시킬 수 있는 유혹들이 많”(292면)은 곳이고, 그래서 주저한다.

『해바라기 꽃잎』에서 화가 지망생 월국이 조선인이 집거하는 연해주를 떠나 이르쿠츠크에서 그림 공부를 하고, 다시 러시아의 심장 모스크바에 유학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각양의 질곡은 연해주의 조선인들이 이주 정착 과정에서 감내해야 했던 간고한 삶의 축도에 다름 아니다. 바꿔 말하여, 작가는 이 작품에서 월국의 성장 과정을 연해주 조선인의 이주사와 엮어 이야기를 전개, 독자들로 하여금 월국을 통해 이주 조선인들의 삶의 과정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월국과 함께 실습학교를 다닌 조선인 학생 2명은 졸업 후 동시베리아 홍개호에 가서 일하게 되고, 월국과 결혼하게 되는 윤미도 조선 여학생 네 명과 함께 하바롭스크의 여학교에서 공부한다. 그러나 이들의 앞날은 밝지만은 않다. 월국이 그림 공부를 위해 모스크바에 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까닭도 가늠할 수 없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윤미의 말처럼 모스크바에 가면 힘든 일을 수없이 겪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화가 되기 위해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자신 “알 수가 없어”(367면) 망설임과 두려움은 가시지 않는다. 그러나 최일수 일행

이 나고 자란 고향 경흥을 등지고 “저 알 수 없는 곳” 러시아 연해주로 떠났던 것처럼, 월국은 마침내 ‘알 수 없는’ 모스크바로 떠난다.

‘알 수 없는’ 것은 모스크바나 연해주의 사회 상황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월국의 앞날, 연해주 이주 조선인의 미래 또한 그러하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월국이 윤미와의 혼인식을 마치고 모스크바로 떠나기 전, “어디에 살든 세상은 무자비한 것”이고, 그래서 “나약한 자는 깨지고 강한 자만 살아남게 마련”(384면)이라는 블라고슬로벤노 마을 러시아 지휘관의 충고를 통해 장차 함께 가정을 이룰 그들의 앞날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내비친다. 모스크바로 가는 기차에서 돈을 잃어버리고, 모스크바에 도착한 후 임신의 몸인 윤미가 월국의 미술 선생 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서 간신히 빠져 나오는 일 등도 그러하다. 이는 월국과 윤미, 이제 곧 태어날 그들의 아기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넌지시 내보이는 에피소드에 다름 아닌 것이다. 나아가 이것은 이주 2세대 3세대가 낳은 나라에서 살아가야 할 ‘알 수 없는’ 세계를 암시한다고 바꿔 말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제목처럼, 해바라기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것’과 같은 삶이 그것이다.

『해바라기 꽃잎』은, 위에서 본 대로, 월국이 조선인 집거지 연해주를 떠나 러시아라는 새로운 세계에서 성장해나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주인공 월국을 통해 이주 정착 과정에서의 조선인의 삶과 부조리한 당대 사회 현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나가는 지난한 역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러시아 사회에 뛰어들어 월국이 새삼 자기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고려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탐색해 가는 과정은 주목된다.

“스스로를 러시아인이라고 여기세요?”

“러시아인이라고요?”

“러시아어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인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도 모르지요. 전 물론 앞으로도 배울 것이 많지만, 러시아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 제 민족성이 방해가 된 적은 없어요.”

“희한한 일이군요. 바로 지금만 해도 조선인인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러시아어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중략) 우리 엄마는 러시아인이거든요. 날더러 조선인과 러시아인 중 어느 쪽을 더 가깝게 느끼냐고 묻는다면, 난 딱 부러진 대답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도 잘 모르니까요. 내가 러시아인이라고 말한다면 아빠

를 모욕하는 게 될 테고, 조선인이라고 말한다면 엄마를 모욕하는 게 될 거예요. 엄마는 내가 조선인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말이예요.”²¹⁾

위의 인용문은 월국과 세베리나와의 대화 일부이다. 세베리나는 조선인 아버지 방채도와 러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난 조선인 2세이다. 말하자면 혼혈 조선인 2세라 할 수 있는데, 그녀의 “스스로를 러시아인이라고 여기세요?” 라는 질문에 월국은 의아해 한다. 그러나 그는 ‘러시아인이 되어야’ 한다는 세베리나를, “창백한 얼굴에 검은 머리 그리고 초록빛과 갈색이 도는 눈빛을 하고 있는 이 여학생”을 “수수께끼 같은 존재”(323면)로 느끼는 한편, 혼혈 조선인 2세로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그녀의 고뇌를 짐작한다. “러시아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러시아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러시아인화해야 하는 현실을 그 또한 체험적으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러시아인인지 조선인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자신도 잘 모르니까” 딱 부러지게 대답할 수 없다는 세베리나의 혼란은 월국 자신의 것일 수도 있었던 것이다. 러시아 시를 이해하는 데 “민족성이 방해가 된 적은 없”다는 월국의 말이 공허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해바라기 꽃잎』은 1장에서는 이주 조선인의 연해주에서의 정착 과정을, 그리고 2장부터 화가 지망생 월국의 성장 과정과 함께 이주 조선인의 간고한 삶과 살아남기 위해 러시아인으로의 동화해가는 과정을 담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주인공 월국의 성장사를 통해 CIS 고려인의 이주사를 재구해 보이는 한편, 고려인들이 겪은 정체성 혼란 문제를 형상화하고 있다고 바꿔 말할 수 있다.

3. 예술, 민족과 탈(脫)민족의 균형 잡기

『천사들의 기습』은 작가가 성인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메모해두었던 것을 토대로 1985년 고르바초프가 집권한 다음해인 1986년에 작품을 완성, 모스크바의 문학지 『므이슬리』와 알마아타의 문학지 『프베르스뜨르』에 발표한 작품이다. 『천사들의 기습』

21) 위의 작품, 321~322면.

은 작가 스스로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라 꼽은 장편소설로, 『해바라기 꽃잎』의 속편이라 할 수 있다. 『해바라기 꽃잎』이 화가 지망생 월국을 통해 CIS 고려인의 이주사를 재구해보이면서 동시에 고려인의 정체성 혼란 문제를 그려내고 있다면, 『천사들의 기슭』은 화가 아르카지를 통해 이주 조선인들이 소련 체제에서 경험해야 했던 여러 가지 모순을 형상화하고 있다. 『해바라기 꽃잎』에서 주인공 월국은 화가가 되기 위해 모스크바에 유학하고 당대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 때문에 갖가지 곤경을 겪게 되는데, 『천사들의 기슭』에서는 그것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점에서, 이 작품의 주인공인 화가 아르카지는 모스크바에 유학한 이후의 『해바라기 꽃잎』의 주인공 월국이라 볼 수 있다.

알려진 대로, 스탈린 시대의 소련은 정치·사회 각 분야에 걸쳐 통제와 감시가 날로 심해지는데, 이민족에게는 특히 그러했다. 소련의 정치 탄압은 1934년 S.M. 키로프(S.M.Kirov)의 살해로부터 시작된다. 이 시기 이주 조선인들에 대한 체포도 일종의 정치적 탄압이라 할 수 있다. 죄목은 1925-25년 사이 극동 지역에서의 이리저리한 당파에 소속되어 조선인들 사이의 과당 싸움에 가담했다는 것이지만, 물론 무고·소문·추측 등에 근거한 것으로 증거가 불충분하였다. 하지만, 조선인은 극동에서뿐만 아니라 소련 전 지역에서 체포당하는 일이 빈번히 벌어지는데, 체포되어 카자흐스탄 아랄 지역으로까지 추방당한 사람도 있다고 전해진다. 1930년대 중반 극동의 조선인·폴란드인 등 이민족은 아프가니스탄 인근 지역으로 강제이주 및 행정적 추방을 당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1937년 연해주의 이주 조선인들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이주를 당한다.²²⁾

뿐만 아니라, 소련 당국은 정책적으로 강제 이주시킨 고려인들에게 공민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 시기 고려인들에게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을 뿐 아니라, 소련 공민으로서의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한다. 창작 활동 또한 자유로울 수 없었음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러한 차별과 탄압은 스탈린 사후 후르시초프 시대까지 지속된다. 이 시기 고려인 작가의 작품 대부분이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여기서 연유한다. 『천사들의 기슭』은 이러한 사회 상황을 주인공을 통해 비판적으로

22) 이에 대해서는 김 게르만, 「러시아 극동지방 고려인 강제이주」, 『나는 고려사람이다』, 2013 참조.

내보인다. 다음에 보이는 것처럼, 조선인 화가 아르까지와 그의 친구들은 자유롭게 자신들의 생각을 화폭에 담을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한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달리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제목이 <감시원>이라고 하는데, 굉장한 작품이지. 망치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석고상처럼 아주 강하게 생긴 여자가 눈을 부릅뜨고 팔, 다리를 버티고 서서 버스 정거장에서 <무임승객>을 잡아내는 거야. 내가 더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모습에다가 숨은 뜻 따위를 담아낼 여지가 있겠나? 다른 사람이라고 별 다른 수가 있겠나? 우리 모두 달리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겠나? 휴우, 맏소사!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바로 이게 진실이라네.²³⁾

주인공 아르까지는 소련 사회가 강요하는 체제이념을 그대로 그림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 볼 수 없는 현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화가 아르까지의 자조는 이와 같은 소련의 사회체제와 당국의 폭압적 통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는데, 소련 시절의 예술정책을 대한 시각 또한 그러하다. 소련 예술계에는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복사하는 사실주의 화가가 있고, 삶과는 유리되어 있는 전위주의 화가”가 있는데, 그러나 “전위주의 화가 들한테는 그림 전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들은 생활이 어려워 “지하실에서 지내고”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화가를 꿈꾸는 소녀 아나스따시야를 통해 창작의 자유, 예술의 다양성을 원천 봉쇄하고 사회주의 이념에 맞게 획일화 시키는 소련 당국의 예술정책을 비판한다. 사실주의 화가가 “삶을 그대로 복사하는” 화가라면, 전위주의 화가는 “삶과는 유리되어 있는”(163면) 세계를 화폭에 담아내는 화가인데,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전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탈린과 후르시초프 시절 소련에서의 엄중한 사회 통제를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소련 당국이 강요하는 사실주의는 이 시기 문학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술 전 분야에 걸쳐 사회주의 이념을 찬양 선전하는 체제 영합적인 내용을 담은 작품들을 양산하게 한다. 미술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고, 그래서 소위 사실주의 화가의 작품들은 어떤 예술

23) 박 미하일, 『천사들의 기습』, 『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 새터, 1995, 118면. 이하 작품 인용은 면수만 밝힘.

성도 담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으로 선전되고 전시 기회도 많이 제공받았다. 이에 반하여 전위주의 화가들의 작품은 전시 기회는 커녕 “불도저로 다 쓸어”내버려진다. 따라서 삶과는 유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시대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비전과 함께 예술성을 추구하는 전위주의 화가들은 절망하게 되고, 체제에 순응하거나 창작을 포기한다. 전위주의 화가 볼스끼의 죽음은 이러한 시대 상황이 빚어낸 비극에 다름 아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아르까지와 함께 그림을 그리던 볼스끼는 사회주의 이념에 속박된 그림을 그리기를 포기,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예술 세계를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결국 자살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주인공 아르까지는 “아저씨는 어떤 쪽이세요? 전위주의자예요?”라는 화가 지망생 소녀 아나스파시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못하고, 문득 자신을 되돌아본다.

『천사들의 기슭』에서 작가는, 스탈린 집권 이후 개혁개방 이전까지 소련의 억압적인 시대 상황에 대한 비판적으로 인식과 함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전망을 모색해 보이는데, 이는 화가 아르까지의 정체성 탐구로 이어진다. 박 미하일은 이 작품의 창작 동기와 관련하여 “내용은 공산주의 체제의 획일적인 문화정책 하에서 자유로운 예술 혼을 찾고자 하는 한 화가의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이념적인 소설은 아니다.”라고 밝힌다. 예술가라면 작가의 창조적인 예술 활동을 탄압하고 사회주의 이념 지향만을 강요하는 사회체제를 마당히 거부하고 저항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 만으로는 창작의 자유나 예술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공산주의 체제이든 자본주의 체제이든, 어느 시대 어느 체제하에서도 예술가가 마주치는 가장 큰 벽은 자기 자신 이기 때문이다.”²⁴⁾ 주인공 아르까지의, 그를 통한 작가의 자기 정체성 탐구를 ‘예술을 매개로 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이 작품의 두드러진 덕목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 아르까지는 모스크바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 아우간으로 돌아간다. 아우간은 그가 태어나 자란 조선인 집거마을로, 그의 어머니, 아이 넷을 둔 누나도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 그리고 아르까지가 만년 간 함께 살았던 조선인 막심 최와 그의 아내 유라가 땅을 임차하여 양파를 재배하며 살고 있다. 그의 고향에는 여전히 다양한 조선인들이 살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또 그 누구도 알려 하지 않는다. 모스크바로 떠나며 다시는 고향 아우간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아르까지는

24) 박 미하일, 「작가의 말」, 위의 책, 9면.

무엇 때문에 "그렇듯 세상을 전전하고 다녔는지" "언제인가 그 이유를" 스스로도 알게 될 날이 있을지는 알 수 없었"(35면)지만, 그런 가운데 그는 참으로 세상을 많이 전전하고 다녔다. 그리고 귀향 후 그는 철도회사 차고에서 안전조치와 관련된 선전 포스트를 그리며 생계를 꾸려간다. 그는 자신이 마치 포도송이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알갱이 같다고 느끼면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나는 조선을 주제로 한 그림을 아직 한 점도 그려보지 못했다. 나는 조선인이고 내가 이 사실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나는 끊임없이 이 사실에 대해 생각해왔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생각 하나만으로 정신이 피딱 들 때가 있다. 유럽인이기도 하고, 조선인 얼굴을 한 러시아인이기도 하고, (중략) 내가 누구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나는 찾지 못했다. **이 사실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는 것은 어떨까?**²⁵⁾

고향을 떠난 아르까지는 오랜 세월 때로는 "유럽인기도 하고" 때로는 "조선인 얼굴을 한 러시아인"으로 세상을 섭렵하고 다닌다. 말하자면,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세상을 전전한 셈인데, 그러나 그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 그는 지금까지도 "조선을 주제로 한 그림을 한 점도 그려보지 못"한다. 조선인을 상징하는 색은 흰색인데, 하얀 화폭에 흰색 물감으로 그림을 그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 이유일 뿐, 그 이면에는 정체성 혼란이 기저하고 있다. 러시아인도 아니고 유럽인도 아니고 조선인도 아닌, 러시아인일 수도 있고 조선인일 수도 있는 '나는 여전히 경계인(marginal man)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노마드'의 삶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는 '조선의 형상을 상상할 수가 없다. "겉모양 말고는 조선인다운 면이 하나도 없"(132면)는 아르까지는 '조선'을 주제로 하는 그림을 그려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 여전히 러시아인인지 조선인인지 '나'를 찾지 못하는 "이 사실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려 한다.

그러나 『천사들의 기슭』의 주인공 아르까지는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는 조선과 조선인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해왔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생각

25) 위의 작품, 149면.

하나만으로 정신이 피떡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개혁개방 이후 “민족적 자각 운운하면서 잃어버린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서로들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조선인인가깝다고 입에 거품을 물어가며 내세우는”(133면) 주변 사람들을 못마땅해 하고 경멸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아르까지의 아내 벨리도 아르까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벨리는 조선인인데, 그녀는 조선족 마을에서 자라지 않아 조선말도 모르고, 관습도 모른다. 그녀의 부모 또한 전혀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창피하다고 생각해보는 적이 없다. 1937년 스탈린 정부에 의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이주당한 조선인들은 공민권 박탈과 주거 제한, 그리고 민족어(조선어) 사용 금지 등의 차별과 통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조선인 사회는 조선말을 쓸 수도 배울 수도 없게 되고, 이 때문에 점차 조선의 전통적 관습이 사라지고, 조선인 마을에 모여 사는 사람들조차 조선말 대신 러시아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기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인이나 현지인과 혼인하는 이른바 이민족과의 혼인도 점증한다. 조선인 사회에 이른바 탈(脫)민족, 러시아인화 현상이 확산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얼굴 생김새가 아니면 조선인다운 면이 전혀 없는 벨리로서는 조선말을 모르는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부끄러워할 일도 아닌 것이다. 오히려 뒤늦게 ‘민족적 자각 운운하며 앞다퉈 조선인척 허세를 부리는 일이 창피할 뿐이다.

아르까지와 혼인한 후 또한 그러하다. 그녀는 신혼시절에는 생계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는 아르까지에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그의 예술 세계를 이해하게 되면서부터는 아르까지와 일체가 된다. 생활이 곤궁해진 그녀는 소련 당국의 끈나폴 노릇을 하며 작품 전시회를 주관하는 화가를 찾아가 남편 아르까지의 작품 전시를 부탁하는데, 그가 자신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몸을 맡긴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그동안 아르까지가 어떤 마음으로 예술 창작에 임했는지 헤아리게 된다. 아르까지의 그림들은 ‘마치 갓난아이와도 같이 벌거벗겨지고 무방비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녀 자신 또한 아르까지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음을 새삼 인지하게 된 것이다. 이후 그녀는 남편 아르까지는 물론 그의 예술까지 가슴에 담고 동행한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천사들의 기슭』의 주인공인 화가 아르까지와 그의 아내 벨리는 “겉모양 말고는 조선인다운 면이 하나도 없”는 그들이지만, 자신들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민족성에 속박되지는 않는다. 화가 아르까지

는 창작의 자유를 엄격히 통제하는 소련의 정치체제 하에서 '자유로운 예술혼을 찾고자' 고향을 떠나 세상을 전전하다가 귀향, 여전히 잃어버린 '나'를 찾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려 한다. 비뀌 말하여, 아르까지지는 시대의 질곡과 모순에 영합하지 않는 예술 세계를 매개로 '고려인'의 간고한 삶, 나아가 어느 시대에서든 부조리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전망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아르까지가 추구하는 예술세계는 '민족'과 '탈(脫)민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하나의 기재로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는 작가 박 미하일이 어떤 이념이나 '민족성'이라는 카테고리에도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장편소설을 창작해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고 하겠는데, 그가 대부분의 CIS 고려인 작가들과 차별화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4. 결어

오늘날 CIS 지역에서 한국어로 창작하는 작가는 거의 사라지고 있다. 대부분의 작가들은 러시아어로 창작 활동을 하고 있고, 세대가 거듭될수록 민족의식도 약화되고 있다. 박 미하일은 능숙하지는 않지만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도 러시아어로 창작하고 있다. 그러나 박 미하일은 CIS 지역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여타 고려인 작가들과는 사뭇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박 미하일은 사할린이나 연해주 출신 작가도 아니고, 탈북 고려인 작가도 아니다. 그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고, 타지키스탄에서 공부를 했으며, 이후 주로 카자흐스탄에서 작품 활동을 하다 지금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살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여타 고려인 작가들과는 달리 고려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소련 체제의 모순과 통합하여 사고하고, 민족성을 소거하거나 민족성에 속박되지도 않는 독특한 작품 세계를 내보인다.

박 미하일의 장편소설 『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와 『천사들의 기슭』은 작가 개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들 작품은 작가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화가 주인공을 통해 질곡으로 점철된 고려인 이주사의 재구와 함께 고려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탐색해나가는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해바라기 꽃잎』은 이주 조선인의 연해주에서의 정착 과정을, 그리고 화가 지망생 월국의 성장 과정과 함께 이주 조선인의 간고한 삶, 살아남기 위해 러시아인으로의 동화해가는 과정을 담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주인공 월국의 성장사를 통해 CIS 고려인의 이주사를 재구해 보이는 한편, 고려인들이 겪은 정체성 혼란과 탐색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천사들의 기슭』은 주인공인 화가 아르까지를 통해 이주 조선인들이 소련 시절의 폭압적 사회체제 하에서 경험해야 했던 차별과 억압의 삶을 그려 보이는 한편, 시대의 질곡과 모순에 영합하지 않는 예술 세계를 매개로 ‘고려인’의 간고한 삶, 나아가 어느 시대에서든 부조리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전망을 모색해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주인공 아르까지가 민족성을 소거하지도 않고 또 그것에 속박되지도 않으면서 추구하는 예술세계는 ‘민족과·탈(脫)민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하나의 기재로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작가 박 미하일이 어떤 이념이나 소위 ‘민족성’이라는 카테고리에도 얽매이지 않은 채 끊임없이 장편소설을 창작해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여타 CIS 고려인 작가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만의 덕목이라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작가 박 미하일의 문학세계는 앞으로 고려인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 주제어 : 고려인, 조선인, 이주사, 자기정체성, 민족, 탈민족, 균형 잡기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박 미하일, 『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 새터, 1995.

2. 논저

강만길, 『강만길 역사기행 회상의 열차를 타고: 고려인 강제이주 그 통한의 길을 가다』, 한길사, 1999.

김 게르만, 『한인 이주의 역사』, 박영사, 2004.

_____, 『나는 고려사람이다』, 국학자료원, 2013.

김중회(편), 『한민족 문화권의 문학 2』, 국학자료원, 2006.

김필영,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문학사』, 강남대출판부, 2004.

박 안토니나, 「미하일 박의 소설 연구 - 『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51집, 2011. 4.

장미야, 「박 미하일 소설에 나타난 '고려인-예술가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 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2.

윤인진, 『코리아 디아스포라: 재외 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출판부, 2004.

이상갑·정덕준, 「민족어의 자장(磁場), 민족의 경계 넘기. 『행복의 고향』 『오늘의 벗』 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28집, 2006. 8.

_____, 「1990년대 이후 CIS지역 고려인 문학 연구-박미하일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9집, 2013. 6.

임형모(외), 『고려인문학: 중앙아시아편』, 청동거울, 2013.

Kim Syn Hva, Ocherk po istorii sovetskikh koreicev, Alma-Ata:Nauka, 1965 Mirkurbanov N.M., The Artistic world of small prose by Michail Park, 국제학술세미나 <한국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언어·문화 비교연구> 발표논문집,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1. 10. 27.~28.

Temirbolat Alua, Poetics of M. Park's "Seoul Vacation" stories, 국제학술회의 <중앙아시아와 한국> 발표논문집, 카자흐스탄 알마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 10. 24.~25.

[Abstract]

The Study on CIS Korean Writer Park Mikhail's Novel

Chung Dukjoon/ Kim German

Park Mikhail is not ex-Sakhalin writer and ex-Yeonhaeju writer, and so ex-North Korea writer. He was born Uzbekistan, and studied in Tadjhikistan, and then mostly worked in Kazakhstan, and now is around Russia. He thinks CIS Korean's matter integrated with Soviet regime's contradiction. And in the process he does not erase nationality and does not hold in bondage, and he seeks rather prospect to overcome CIS Korean's matter and Soviet regime's contradiction through characters that strive high-artistic achievement.

The works *Sunflower Petal Flutter* has two novels as *Sunflower Petal Flutter* and *A pier of Angels*. This two novels are very meaningful to writer. The former ferrets out the writer's identity with reference to CIS Korean's history of migration, the latter is the novel that writer thinks most valuably. This two novels have all painter heroes as writer's other self.

Park Mikhail reintegrates CIS Korean's history of migration through the novel *Sunflower Petal Flutter*, and at the same time strives the writer's Identity (identity) as CIS Korean writer. In other words, he seeks prospect to overcome the hard lives of Joseon Persons of migration and for the moment unreasonable reality, and at the same time ferrets out the writer's Identity as CIS Korean.

A pier of Angels embodies many contradictions that Joseon Persons of migration have been suffered under Soviet regime, and at the same time ferrets out the writer's Identity as CIS Korean. Especially *A pier of Angels*

does not erase nationality and does not hold in bondage, and it seeks rather prospect to overcome CIS Korean's matter and Soviet regime's contradiction through the artistic world that does not pander to the contradiction. Ultimately the writer counterbalances between nation and ex-nation. This is the writer Park Mikhail's prominent feature.

【Key words】 : CIS Korean, Joseon Person, History of Migration, Identity, Nation, Ex-Nation, Counterbalancing

정덕준

카자흐스탄국립대학 초빙교수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al-Farabi Kazakh National University, Karasay batyr 95,
Almaty Kazakhstan

전자우편: djc21@naver.com

김 게르만

카자흐스탄국립대학 교수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Studies al-Farabi Kazakh National
University, Karasay batyr 95, Almaty Kazakhstan

전자우편: gerkim@mail.ru

이 논문은 2015년 7월 31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8월 22일에 심사 완료되어 9월 1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